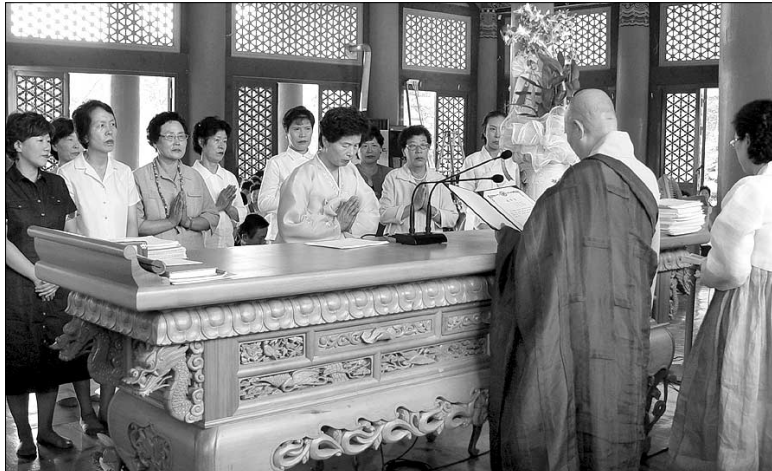


대구 봉황자원봉사단 창립4주년 기념법회

“전문화로 거듭나자”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봉사자 2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교육제도 도입·조직력 강화에 역점

조계종 교구 봉사 최초 연합 봉사단인 대구교구 봉황자원봉사단이 창립 4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봉사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착수했다.

2000년 8월 31일 창단된 봉황자원봉사단은 15개 사찰 350여명의 봉사자를 갖춘 조직으로 결성초년 지원, 대구 맹인보육회 접자도서관 설립 바자회, 어르신

경로잔치, 대구지하철 참사현장과 태풍 무사 피해현장 복구 등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불교계 자원봉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본말사 간의 교류를 이끌어내고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봉황자원봉사단은 8월 31일 창립 4주년을 맞아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기념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요식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었다. 교구 차원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봉사단이라는 자긍심을 결 맺는 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본사 동화사 포교국은 3개월 전 이미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문봉사단으로 발돋움할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봉황자원봉사단의 전문성과 조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담당한 동화사 포교국장 발문 스님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강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는 현대에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며 봉황자원봉사단의 도약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내놓았다.

첫째는 체계적인 봉사자 교육이다.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이름을 내기 위한 차원이 아닌 수행의 일環이 되도록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따라서 봉사단은 3개월 또는 6개월의 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자원봉사단 교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왜 봉사를 하는가’ 하는 마음가짐부터 자세, 태도, 역할까지 기본교육을 거친 봉사자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둘째, 본 말사 간 봉사단의 연대를 강화해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재정을 확보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단순 노력봉사 차원을 넘어 장애우, 어르신, 영·유아 시설 등으로 봉사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간병봉사자 양성, 이·미용,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봉사자를 확보하고 봉사단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발문 스님은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본사는 물론 말사 스님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봉사자 교육에 말사 스님들을 투입, 말사 스님들간의 유대를 긴밀히 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봉사단에 대한 관심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월정사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프로그램 ‘톡톡’ 주민 기대 ‘쑥쑥’

진신사리 이운·체험행사 다채

산사영화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포교 역할을 톡톡히 했던 월정사(주지 정념)가 강원도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월정사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불교문화축제는 오대제 축제위원회 중심으로 매년 9월 중에 개최됐던 오대제를 8월 ‘평창 산악 꽃축제’와 10월 ‘오대산 불교문화축제’로 특성화한 것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강원도의 대표적 축제’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불교문화축제는 체험의 장, 공연의 장, 판매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첫째 날 ‘불교한마당’에서는 200여명 규모의 수련시설인 대법륜전 점안식 및 낙성식이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개막식에 이어 상원사에 봉안돼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에서는 외국인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 보천태자의 현대적 과정을 재현해 불교가 일개 종교가 아닌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알리게 된다. 보살계 수계 대법회와

점등식(만등 밝히기, 탑돌이), 전국 규모의 불교 합창단 찬불가 경연대회, 산사 영화제를 끝으로 축제의 하루가 마감된다.

둘째 날 ‘문화한마당’에서는 오대산 사진 공모전, 청소년 사생 백일장 대회, 불교문화공연(영상작품, 학춤), 사물소리향연 및 체험 등이 열린다. 특히 월정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오대산불교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국제 불교문화공연도 선보인다. 월정사측은 이를 통해 한국불교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불교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연등빛과 소리의 만남에 이어 국악과 서양음악, 대중음악,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산사음악회가 둘째 날의 끝을 장식한다.

셋째 날 ‘지역주민한마당’에서는 오대산 비로봉 금빛 걷음 등반대회, 화상식, 화향한마당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유튜브 보는 문수신앙 특별전, 중국 오대산 사진전, 오대산사진공모전 당선작 전시회, 서각전 및 체험, 예술연등 전시회, 티베트 탕카전 등 다양한 전시회와 먹거리 시장, 특산물 판매, 서로돕기 바자회, 다례체험, 사찰음식 및 산채비빔밥 체험 등 체험 행사도 열린다.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믿고 편안히 맡기세요

부산 선재어린이집, 24시간 탁아소 개원



부산 선재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받는 모습.

“사찰 이집 살린 정서교육 할 것”

부산 교계 최초로 24시간 탁아가 가능한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부산 연산동 해원정사 내에 문을 연 선재어린이집(원장 이명숙)은 12개월부터 7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의 직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24시간 탁아가 가능하다. 24시간 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업과 다양한 놀이, 게임을 진행한다.

사회복지법인 해원(대표이사 원희)이 운영하는 선재 어린이집은 95평의 건평에 교실 4개, 놀이방 1개, 사무실,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40명 정원으로 8월 초 문을 열었고, 8월 16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현재 24시간 보호 아동 2명을 비롯 22명의 원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선재어린이집은 인성교육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교실을 꾸며 놓고 공중놀이방에서 함께 어울려 놀러 있도록 놀이방을 크게 설계했다. 이 밖에도 기동과 복도를 모두 통글게 마감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했다.

이 명숙 원장은 “집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하는 어린이집이라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고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다도 수업, 텃밭 가꾸기 등의 수업을 통해 사찰의 특수성을 살리고 자연과 어울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서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증심사 입구역’ 이 마땅

광주 타종교계 재심청원

광주사암련 강력 비판

광주불교사암련협회(이하 광주사암련)는 특정종교의 일부인사들이 이미 최종 확정된 광주지하철 ‘증심사 입구역’ 명칭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최근 재심 청원을 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사암련은 9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증심사 입구역 명칭에 대한 시비제기와 역명변경요구는 특정종교에 편향된 일부 인사들의 편협적인 현실인식이 낳은 독선적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암련은 이어 “종교적 명칭의 역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재심을 청원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광주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안하무인적인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증심사 입구역”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은 증심사가 단순한 불교사찰의 이름을

떠나 천년역사를 통해 지역민에게 깊이 인식된 전통명칭인대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시의 정책방향과도 전적으로 부합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차 통한 만남의시간 즐겨요” 해인사 다경원 차문화 수련



청운다례원과 관정다례원 등의 차시연 모습.

해인사 다경원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보경당에서 차문화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진 차문화 수

련법회는 전국의 다인들과 차를 좋아하는 불자 120여명이 동참해 차를 통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에는 박희준(항기를 찾는 사람들 대표)씨가 ‘차와 향의 어울림’에 대해서 도예촌 발담가마의 여성명 씨가 ‘차실문화와 도자기’에 대해 강의했다. 둘째 날 새벽에는 잠선에 이어 법진 스님의 법문, 백련암 참배와 헌다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29일 오후엔 앞 파란 축구장에서 펼쳐진 들차회는 이번 수련법회의 하이라이트로 청운다례원(원장 박선우), 관정다례원(원장 정전희), 명정차회(회장 배명자)의 일차, 말차, 중국차 시연이 진행됐다.

다경원은 차를 마시며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차를 좋아하는 해인사대학원 학인 스님들의 모임이다.

4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다경원은 <다로경관>이라는 회보 발행으로도 유명하다. 배지선 기자

노인학대 해결책 모색

불국토 8일 워크숍

해대법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쉼터를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9월 8일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열리는 노인학대 예방 제10차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워크숍은 ‘노인학대 예방센터 도입에 따른 발전방안’ ‘노인학대 예방 실천 사례 연구’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효율적 운영 전략’ 등의 연구발표로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황인옥 부산여자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부산광역시 노인쉼터 윤기혁 소장, 박남철 ISO9001 사회복지분야 심사원 등이 나서 이론, 현장, 심사의 세 분야에서 살펴본 노인학대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051)867-9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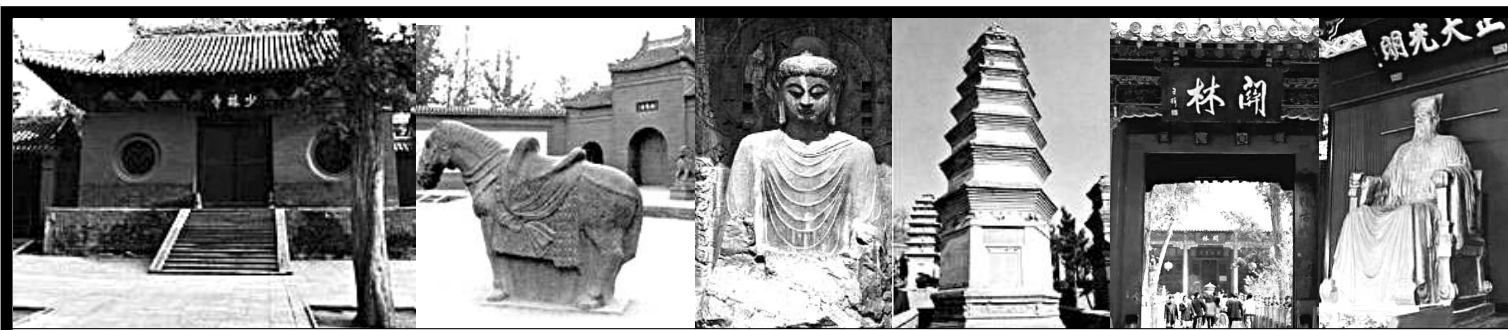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울산 관음암 ‘들꽃축제’ 열어

울산 관음암(주지 대환)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관음암 경내에서 들꽃 전시와 음악회가 어울리는 ‘들꽃축제’를 개최했다.

들꽃축제에서는 좁게는 구리밭과 개죽소리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0여종의 야생 들꽃이 전시됐으며, 매일 오후 6시부터는 지역의 통기타가수와 색소폰 연주자, 국악인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열려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4년 10월 1일 (4박 5일 투어) ● 요금: 4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개봉부 관우의 관림 등

□ 공항세, 출국세, 전쟁보험금 포함. 비자수수료 및 가이드 팁 별도

● 주요명소 : 달마대사가 설립한 중국최초 불교사찰 중국 3대석굴 판관 포청천의 삼국지 관우의 묘지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개봉부 탐림

◆ 일 정 표 ◆					
DATE	CITY	TRANSIT	TIME	LOCAL SERVICE	MEALS
10월 1일	인천	전세기 C28090	22:50 23:50	진세기로 서울 출발 / 정주 도착 후 호텔유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10월 2일	정주 동봉 낙양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동봉,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 고승의 부도인 탑림, 소림사 무술 시범단 무술시범관, 현지 조식 후 중국 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광.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유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낙양 모란성 호텔(4성급) 또는 동급	
10월 3일	낙양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림 관광. 현지 조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관림 관광. 개봉으로 향함. 석식 및 호텔 유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개봉 옥상 호텔 (4성급) 또는 동급	
10월 4일	정주 개봉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명대, 청대에 남방 귀족상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산성간화관, 포청천의 관자 포공사 관광. 현지 조식 후 판관 포청천의 개봉부, 첩탐공원 관광. 정주로 향함 석식 및 호텔 유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10월 5일	정주 인천	전세기 C28099	19:00 21:50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황하 유람구 관광. 현지 조식 후 대한은 유적 관광. 전세기로 귀국.	조식 중식
MEETING ○ SENDING ○ GUIDE FEE ○ AIRPORT ○ SIGHTSEEING ○					
REMARK 불포함사항 : 기사와 가이드 팀, 비자수수료 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 1실), 여행자,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전체비용 포함) 전세기 인 관계로 출,도착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신청마감 : 9월 20일 ◆ 계약금 : 150,000원 ◆ 비자수수료 : 18,000원

◆ 연락처 : (주)격린여행사 TEL 02)337-9337

FAX 02)337-3231-3858